

interview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

“수행풍토 확립에 주력”

18일 신년 기자회견...상월원각대조사 탄신 100주년 사업 등 추진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사진)은 1월 18일 서울 관문사에서 신년기자회견을 갖고 “올해는 수행풍토 확립·환경및 민족 화해사업에 주력하겠다”며 “이를 통해 한국불교의 중심종단으로 역할을 다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 주요인사가 참여하는 기념사업회를 발족해 유지를 계승하는데 경주할 예정이다. 기념사업회는 출판사업 문화사업 학술사업 등으로 분야를 나눠 세부적인 업무계획을 마련중입니다. 특히 대조사님의 가르침을 학술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중진 불교학자들이 참여하는 ‘원각사상연구원’을 2월경 발족할 예정입니다. 또 금강불교대학을 각 사찰단위로 운영하고, 종립 금강대에서도 새 총장을 중심으로 천태교회의 이정표를 세우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미 개성 영통사 복원을 2005년 회향해 올해는 성지순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젠 인도적 차원의 북한 주민돕기사업도 전개할 예정입니다.

다. 지난해 6차례에 걸쳐 실시했던 ‘새터민(탈북자) 템플스테이’도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환경운동은 일단 지난해 9월 설립된 ‘소백산 지킴이운동본부’를 중심으로 환경보존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나아가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대도시 사찰을 중심으로 자연환경운동에 적극 참여 시킬 계획입니다.”

▲지나해 비구니스님들의 역할 증대를 얘기하셨는데, 현재 얼마나 문화가 개방됐습니까. “현재 유치원 어린이 청소년 청년회를 비구니 스님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관에도 점차 역할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비구니스님 30명에

게 서울에 있는 불교아카데미에서 교육을 받도록 했습니다. 총무원의 행정직에만 참여해는 비구니스님들을 앞으로 천태종 지역사찰의 교무로 파견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천태종의 균등편견 전파와 독자적인 균등편견 계획은?

“그동안 종단협의회 차원에서 조계종과 문화개방에 대해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지난해 불교 군승은 8명이 줄었습니다. 불교가 채우지 못한 정원을 모두 가톨릭이 가져갔습니다. 군불교 포교의 경우 타종교에 비해 약한 상황입니다. 정규 4년제 대학이 있는 조계종 천태종 진각종이 공히 힘을 합쳐 군승을 파견하면 될터인데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조계종에서 계속 군승 문호를 개방하지 않으면 독자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밖에도 정산 스님은 중국불교 협회와 긴밀한 협의하에 학술교류와 문화교류행사를 펼치고, 3월 충북 단양복지관 수탁, 2월부터 금강 불교신문 주간발행 등의 계획을 밝혔다.

김원우 기자 wkim@buddhapia.com

군포교·군종교구 소식 “배달해요”

조계종 군종교구 ‘월간 군포교’ 창간

군포교 활동을 홍보하고 교구 소식 등을 전해줄 <월간 군불교>가 창간됐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주지 일면)가 1월 10일자로 창간호 소식지 <월간 군불교>는 신국판, 20페이지, 칼라로 제작됐다. 창간호는 △만인동참 소개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격려사 △군종특별교구 주지 일면 스님 발간사 △군사찰탐방(국방부 원광사) △불자수기(제3회 육·해·공군 준·부사관 불자 수련회

를 다녀와서) △각계 창간축사 △만인동참자 소개 △교구소식 △포토에세이(사진으로 보는 육군훈련소 위문 및 수계법회) △군 인드라마 홈페이지 소개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군종특별교구는 1월 14일 원광사 큰법당에서 군종특별교구 주지, 성불회장, 예불회장, 군불총회장 등 군불교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법회를 봉행했다. 이 자리에서 박인용 중앙, 김해진 소장, 김동균 준장 등을 군불총자문위원

북한 건축문화재 관리보수 시급

조계종, ‘북한의 건축문화재’ 펴내

북한 건축문화재의 관리와 보수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해 조계종 총무원이 최근 주요 사찰과 서원, 향교를 비롯한 건축물 사진 자료를 모아 발간된 <북한의 건축문화재>를 통해 확인됐다.

이 책에 따르면 금강산 표훈사 판도방은 처마 평고대(처마 끝에 놓은 긴목재)가 꺾여져 있으며, 영변 천주사 보광전은 천장 쪽이 심하게 갈라져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북한의 건축문화재>에는 석탑과 석등 등 32개 북한 사찰 건축사건 408장과 서원, 향교 등 42개 일반 건축 사진 225장 등 총 633장이 수록됐다.

이 사진들은 2003년 북한 단청안료 지원사업과 2005~2006년 개성지역과 내금강을 답사했을 때 촬영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또한 수록된 사진 중 3분의 2는 국내에서 처음 공개된 회귀 자료들이다. 김주일 기자

정부·조계종 ‘공동실무협의체’ 구성

지관 스님·이치범 환경장관·유홍준 문화재청장 ‘합의’

문화재관람료 문제 ‘해법찾기’ 주목

정부와 조계종이 문화재관람료 징수에 대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협의해 나가기 위한 공동실무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또 국립공원제도도 자연생태와 문화, 역사유산 보존의 새로운 틀로 변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과 이치범 환경부장관, 유홍준 문화재청장, 박화강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

장은 1월 17일 국립공원입장료 폐지와 문화재관람료 징수에 발생한 각종 문제 등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정부 당국과 조계종 수장들은 논란의 핵심인 매표소 이전 문제와 관련하여도 공동실무협의체에서 논의해 해결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에 따라 문화재관람료 매표

소는 당분간 현행대로 상당기간 유지될 전망이다.

공동실무협의체는 앞으로 매표소 위치 이전 등 현안은 물론 국립공원제도 개선 등까지 아울러 다룬다. 조계종 총무원과 문화관광부, 환경부, 문화재청,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협의체에 참여한다. 구체적인 구성시기와 구성인원, 활동 등에 대해서는 실무논의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특히 공동실무협의체 구성은 이치범 장관이 먼저 제안해 지관 스님과, 유홍준 청장, 박화강 이사장이 이를 수용하면서 합의가 이뤄졌다.

이치범 장관은 1억1000만평에 달하는 국립공원내 사찰소유토지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요구한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에게 “사찰과 사찰환경, 문화재 등이 국립공원을 형성하는 상당한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립공원의 개념은 이에 대한 가치를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립공원제도를 큰 틀에서 생태와 문화, 사찰을 함께 관리,



문화재관람료 논란의 해법을 찾기위해 관계부처·기관 수장들이 1월 17일 한자리에 모였다. 왼쪽부터 박화강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이치범 환경부장관,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유홍준 문화재청장, 조계종 총무부장관 현문 스님.

보존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화재관람료 징수 논란으로 이뤄진 조계종과 정부 당국의 이번 합의는 향후 국립공원과 문화재 관리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

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조계종은 1월 16일 관람료 사찰 전제주의회의를 열고 매표소 위치 조정 등 한발 양보하고 정부당국에 국·도·군립공원에서의 사찰제외, 소관부처 이관 등 제도개선을

불국사 종회의원선거 선운사 산중총회 공고

후보등록 누락 문제로 선거를 치르지 못한 11교구 불국사 직선직 중앙총회의원 선거가 2월 24일 실시된다. 또 고창 선운사는 현 주지 범

여 스님의 임기가 4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새 주지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3월 5일 개최한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고광)는 1월 16일 제170차 회의를 열고 11교구 불국사 중앙총회의원선거 일정과 24교구 선운사 산중총회 일정을 확정했다. 박봉영 기자

“가사불사 단행·의제 개혁”

관음종 중앙총회 결의

관음종(총무원장 홍파)이 가사불사 단행에 종도들의 위계질서 확립에 나서기로 했다.

관음종은 1월 16일 인천 흥륜사에서 제 44차 중앙총회를 개최하고 종법상 법제 및 의제를 간단명료하게 하는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사진).

총회에서는 올 예산 48억9300만원 원을 확정 의결하고, 올해부터 법제



고시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육군훈련소 수계식 정례화, 미안마 기술대학 지속적인 지원, 종단 홈페이지 개편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또한 수록된 사진 중 3분의 2는 국내에서 처음 공개된 회귀 자료들이다. 김주일 기자

대한불교원종 중앙총무원장 성수 스님 선출



주지·사진을 제4대 중앙총무원장

으로 선출됐다. 성수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종도 교양의 내실을 기해 의식 개혁과 지역사회 봉사에 앞장서는 종단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본지 611호 2면 대권후 보들의 불심잡기 기사 본문에서 천태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으로 고칩니다.



아프리카에 한국불교를 전하러 갔던 동봉스님께서 2006년 11월 30일부터 “한국불교 아프리카 진출을 위한 101일 국토 대장정 고행정진”의 장도에 올랐습니다. 경기도 광주 우리절에서 출발하여 하루하루의 고행정진이 진행되고 있으며, 2007년 3월 10일 임진각에서 회향식이 봉행됩니다.

국토대장정 목적 과 방법

한국불교 아프리카 진출을 위한 동봉스님의 고행정진의 목적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한국불교 최초로 검은 대륙 아프리카의 진출을 위한 기금조성, 둘째, 이산가족들의 아픔을 달래는 동시 평화적 남북통일의 염원이며, 셋째, 가정경제를 비롯하여 사회경제 국가경제 살리기, 넷째는, 삼보님과 시주의 네 가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입니다.

고행정진의 방법에 대해서는 출발한 당일로부터 회향하는 날까지 매일 20킬로미터(약50리) 정도를 도보로 걷습니다. 걷는 동안 석가모니불을 염송하며,세간의 다양한 모습과 소리를 들으면서 상담하고 봉사도 합니다. 매일같이 소원들을 모아 아침에는 금강경을 읽고 저녁에는 아미타경과 초발심자경문을 읽으며 기도 축원을 드리며, 중생들의 소리를 듣기 위해 민박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봉사와 법회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제1차적 방법이므로 도보대장정하는 그 지역에 따라 얼마든 가능합니다.

고행정진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분들 중에 직접 몸으로 정진할 분들은 승숙 남녀노소 누구든 가능합니다. 동참기간도 단 하루에서부터 3일간, 5일간, 7일간, 21일간, 또는 전체 기간을 함께 할 수 있으며 그것은 참여하는 불자들이 스스로 정할 수 있습니다. 참여하는 분들은 모두 부처님께 기도하고 축원을 합니다.

고행정진기간을 딱 떨어지는 100일로 하지 않고 101일로 하는 것은 다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우리절 회주 비구東峰正休 합장

010-4800-0882 / kipoo255@yahoo.co.kr / db4676@chol.com
후원입금계좌 : 우리은행 338-058787-13-001 (예금주:대한불교조계종우리절)

- 정진기간 : 2006년11월30일부터 ~ 2007년3월10일까지 ●출발장소 : 대한불교조계종 우리절 ●회향장소 : 임진각
- 후 원 : 태광컴퓨터(주) 태광실업주식회사 정산컨트리클럽 HUCHEMS.유크스주식회사 ,한·현대불교신문사 우리절 동선회 목련사랑

국토대장정 일정표 (기상상황에 따라 약간의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국토대장정 고행정진 출발시간 - 아침 08:00

제9주 1월 25일 - 1월 31일 [158km]

날 짜	출발지	도착지	거 리
1월 25일(목)	광양읍	-	별양면 20km
1월 26일(금)	별 양	-	열가재 22km
1월 27일(토)	열가재	-	보성읍 22km
1월 28일(일)	보성읍	-	장흥읍 27km
1월 29일(월)	장흥읍	-	강진읍 21km
1월 30일(화)	강진읍	-	학 산 26km
1월 31일(수)	학 산	-	목 포 20km

제10주 2월 1일 - 2월 7일 [151km]

날 짜	출발지	도착지	거 리
2월 1일(목)	목포시	-	무안읍 25km
2월 2일(금)	무 안	-	신광 23km
2월 3일(토)	신 광	-	영광읍 17km
2월 4일(일)	영 광	-	고창읍 25km
2월 5일(월)	고 창	-	출포 22km
2월 6일(화)	출 포	-	부안읍 19km
2월 7일(수)	부 안	-	김계 차해사 20km

※위 국토대장정 일정표는 현대불교신문에 2주차씩 연속해서 회향 일정까지 게재해 드립니다.